

宋代 祭文의 변화 연구

- 歐陽修 祭文을 중심으로

李承信*

< 목 차 >

1. 들어가며
2. 祭文의 연원과 종류
 - 1) 祭文의 연원
 - 2) 제문의 종류 및 대상
3. 歐陽修 祭文을 통해 본 宋代 祭文의 변화 양상
 - 1) 내용과 제재의 확대
 - 2) 敘述構造의 변화
 - 3) 抒情的 표현의 특징
 - 4) 行蹟 議論의 삽입
4. 나가며

1. 들어가며

宋代는 古文運動과 더불어 散文 文章의 꽃을 피운 시대로서, 산문의 각종 다양한 체재와 형식이 매우 발달한 시대이다. 특히, 실용적이며 무미건조한 형식의 문장에 문학적 요소가 크게 첨가되어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독자로 하여금 감동을 전해 주는 측면에서 簡易함과 美麗함을 동시에 수반한다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散文 史上 그 문학적 성숙에 있어서 실용성이 가장 강조된 문장들의 문학적 변화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가운데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문장이기가 쉬운 祭文을 실례로 그 문학적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祭文의 연원을 살피고 그것이 송대에 이르러 어떠한 변화를 지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여기에는 송대 문장의 변화에 획기적인 역할을 한 작가들의 제문을 중심으로 한 검토 작업이 필요한데,

그 첫 단계로서 송대 고문운동의 영수인 歐陽修의 제문을 논의해보기로 한다. 그는 散文의 실용성과 문학성의 조화를 위해 문장의 간이함과 미려함을 적극 주장하고 자신의 문학 주장을 문학 창작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천한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제문의 내용과 형식을 궁구함으로써 송대 제문의 변화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2. 祭文의 연원과 종류

1) 祭文의 연원

본래 중국 고대의 문장 체재는 대개 열에서 열 다섯 종류 등으로 나뉘는데,¹⁾ 祭文은 대개 哀祭類 안에 포함된다. 이는 다른 체재에 비하여 異名과 異見이 적고 논자들이 하나의 독립된 체재로 인정하며 특별한 논란이 없는 문체이다. 祭文은 哀辭, 誄, 弔 등과 함께 哀祭文에 속하며 최초의 제문은 신에게 공물을 보고하고 소원을 비는 정도의 내용이다. 그리고 哀辭는 『文心雕龍·哀弔』에 그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데, 『詩經·秦風·黃鳥』에서 秦穆公을 따라 죽은 세 신하의 殉死를 읊는데에 그 기원을 둔다. 이후에 崔瑗에 와서 ‘哀辭’라는 명칭이 있게 되나²⁾ 아직은 체제가 미흡하고, 西晉의 潘岳에 이르면 그 슬퍼함이 잘 드러나게 된다.³⁾ 이 외에

- 1) 薛鳳昌의 『文體論』에서는 論辨體, 序跋體, 奏議體, 書牘體, 贈書體, 詔令體, 傳狀體, 碑誌體, 雜記體, 箴銘體, 頌讚體, 辭賦體, 哀祭體, 傳誌體, 敘記體 등 15체로 분류하였고, 姚鼐의 『古文辭類纂』에서는 論辯體, 序跋體, 奏議體, 書說體, 贈序體, 詔令體, 傳狀體, 碑誌體, 雜記體, 箴銘體, 頌讚體, 辭賦體, 哀祭體 등 13류로 분류하였다. 楮斌杰은 『中國古代文體概論』에서 論說, 雜記, 序跋, 贈序, 書牘, 箴銘, 哀祭, 傳狀, 碑誌, 公牘 등 10류로 구분하고, 陳必祥은 『古代散文文體概論』에서 論辯, 奏議, 書信, 詔令, 傳記, 筆記, 敘事, 遊記, 諷諭, 檄移 등 10류로 구분하였다.
- 2) 擘虞 「文章流別論」: 哀辭者, 誄之類也. 崔瑗, 蘇順, 馬融等爲之, 率以施於童孺夭折, 不以壽終者.
- 3) 『文心雕龍·哀弔』: 賦憲之謚, 短折曰哀. 哀者依也, 悲實依心, 故曰哀也. 以辭遣哀, 蓋下流之悼, 故不在黃發, 必施天昏. 昔三良殉秦, 百夫莫贖, 事均天枉, 『黃鳥』賦哀, 抑亦詩人之哀辭乎? 暨漢武封禪, 而霍子侯暴亡, 帝傷而作詩, 亦哀辭之類矣. 及後漢汝陽王亡, 崔瑗哀辭, 始變前式, 然履突鬼門, 怪而不辭, 駕龍乘雲, 仙而不哀, 又卒章五言, 頗似歌謠, 亦彷彿乎漢武也. 至於蘇順, 張

* 高麗大 中國學研究所 研究教授

哀冊과 哀頌 등의 호칭이 있으며 ‘謀’와 ‘芻’의 명칭 역시 대체적으로 周代부터 시작 된 것으로 보인다.⁴⁾

이러한 애제류 가운데 제문은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것으로 초기 형태는 『文心雕龍·祝盟』에 나타나 있다.

훈은 그 집으로 돌아가고 물은 그 골짜기로 돌아가라. 곤충도 생기지 말고 초목은 소택으로 돌아가라.⁵⁾

이는 伊耆가 처음 수렵에 나가면서 八神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읊은 것이다. 이외에도 舜이 田畝의 神에게 바친 祝文과⁶⁾ 周의 大神官이 읽던 祝文⁷⁾ 등이 초기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제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儀禮』에 기록된 제사의 경우는 일은 단지 신에게 고하고 흠양시키는 것에 그친다. 그러나 한나라와 위나라의 제문은 제사받는 사람의 언행까지 겸하여 찬했다. 제사를 지내면서 칭찬을 겸하는 것은 대개 원래 양식의 기능을 확장시켜 하는 것이다.⁸⁾

최초의 祭文은 원래 哀傷의 뜻이 없고 신에게 보고하는 내용에 불과했는데,⁹⁾ 이후에 칭송하는 내용과 인척과 친구 등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내용이 첨가되었다. 그 형식 또한 賦體 및 駢文에서 점차 散文化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魏晉南北朝 시기에 歌功頌德하는 내용 외에 恤육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 내용이 출현하면서 抒情의 면모가 부가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바로 曹操가 「祭橋公文」

을 썼고 이로부터 ‘祭文’의 정식 명칭이 시작되었다. 이후로 梁 蕭綱의 祭戰亡者文에 오면 祭文의 격식이 완비되어 감을 알 수 있으며, 東晉 殷允의 「祭徐孺子文」에서는 구체적으로 시간과 망자의 직책과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 제수품 등을 명시하여 더욱 격식을 갖추게 되었다.¹⁰⁾

唐宋 시기에 오면 古文 運動이 일어나 문장에서 駢體의 형식이 散體로 많이 바뀌는데, 祭文 역시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그 중 韓愈의 祭十二郎文 과 「祭柳子厚文」, 白居易의 「祭浮梁大兄文」 과 「祭元微之文」, 李商隱의 「重祭外舅司徒公文」 등은 佳作으로 꼽힌다. 특히 韓愈의 「祭十二郎文」은 祭文의 賦體와 駢體가 여전히 만연한 상황을 벗어나, 四言에¹¹⁾ 국한하지 않고 騷體와 長短句를 썼다. 또한 唐 이전의 祭文에는 ‘序’가 있고 正文은 일반적으로 모두 駢麗의 韻文을 썼는데 唐 이후로는 그러한 제약을 받지 않았다.¹²⁾ 아울러 그 대상 역시 달라지게 되는데, 당시 諡法을 간략히 하고 諡議를 폐지하는¹³⁾ 등의 영향으로 신분의 귀천을 불문하고 망자를 위한 글을 쓸 수 있게 됨에 따라 祭文의 대상이 확대되었을 거라 추정한다.¹⁴⁾

2) 祭文의 종류 및 대상

제문은 제사를 받는 대상에 따라 몇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중국 고대의 제사는 주로 天, 天神, 山神, 水神, 土地神, 五穀神, 先祖, 人傑 등과 조상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제문은 제사를 바칠 때 낭송하는 글이므로 당연히 그 대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그 내용 역시 상이한데, 인간의 힘으로 예측하기 어렵

升, 並述哀文, 雖發其情華, 而未極心實. 建安哀辭, 惟偉長差善, 行女一篇, 時有惻怛. 及潘岳繼作, 實鍾其美, 觀其虛瞻詞變, 情洞悲苦, 敘事如傳, 結言摹詩, 促節四言, 鮮有緩句, 故能義直而文婉, 體舊而趣新, 金鹿澤蘭, 莫之或繼也.

4) 馮書耕, 金仞千 著, 『古文通論』(國立編譯館, 1979) 681쪽 참조.

5) “土反其宅, 水歸其壑, 昆蟲無作, 草木歸其澤.”

6) 『文心雕龍·祝盟』: 荷此長耜, 耕彼南畝, 四海俱有.

7) 『文心雕龍·祝盟』: 周喪盛姬, 內史執策, 然則策本書贈, 因哀而爲文也. 是以義同於誄, 而文實告神, 誄首而哀末, 頌體而祝儀. 太祝所讀, 固周之祝文也.

8) 『文心雕龍·祝盟』: 若乃『禮』之祭祀, 事止告饗, 而中代祭文, 兼讚言行. 祭而兼讚, 蓋引伸而作也.

9) 徐師曾 『文體明辨序說』: 古之祭祀, 止于告饗而已.

10) 章明壽 『古代的哀祭文』(文學遺產, 1988 第5期) 참조.

11) 潘岳 「澤蘭哀辭」의 正文은 모두 四言의 駢文으로 되어 있다. “茫茫造化, 愛啓英淑, 猗猗澤蘭, 應靈誕育, 鬢發娥眉, 巧笑美目…….”

12) 陳必祥 『古代散文文體概論』(文史哲出版社, 1987), 208쪽 참조.

13) 徐師曾 『文體明辨』: 古之誄本爲定諡, 而今之誄惟以寓哀, 則不必問其諡之有無, 而皆可知之. 至于貴賤長幼之節, 亦不復論矣.

14) 拙稿 『歐陽修碑誌文小考』(2000. 3. 31 宋代國際學術研討會 發表文) 에서 碑誌文의 연원을 밝히는 과정에서 宋代에 오게 되면 神道碑銘, 墓誌銘, 墓表 등에 있어서도 엄격한 신분의 상하 구분이 없어지게 되고, 碑誌文의 대상이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당연히 祭文의 대상이 확대되는 계기가 된다.

고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일을 간절히 기원하는 것과 애도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 등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역대 제왕들이 모두 나라의 안위와 백성의 평안을 위해 天을 대상으로 제사를 바쳤는데, 이는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바람과 함께 제왕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天神에 속하는 태양신, 달신, 별신 등에게는 주로 바람과 비, 우뢰 등을 그치게 해달라는 제사를 바쳤고, 山神에게는 사냥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원하거나 기우를 희망하는 제사를 바쳤다. 이 山神에는 여러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 제사의 규모, 제수품의 수량,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의 신분 등에 매우 큰 차별을 두었다. 천자가 바치는 제사는 주로 名山大川을 대상으로 하는데, 五嶽이라 불리는 泰山, 崇山, 華山, 衡山, 恆山 등에서 제사 의식을 거행하고 諸侯는 천자의 藩臣이므로 境內의 산신에게만 제사를 바친다. 水神은 주로 女性神, 海神, 龍神, 혹은 죽은 자를 水神으로 삼은 것 등으로, 수신에게는 주로 祈雨를 염원하며 제사를 바친다. 토지신에게는 주로 농업과 관련하여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바치고 社稷에는 祈雨를 위해 제사를 바치고 전쟁 시기에는 社神에게 제사를 바친다. 그리고 실재한 선조나 영웅 등에게 제사를 바치는데, 예를 들어 孔子, 關公, 醫神, 藥神 등을 대상으로 인간의 生老病死와 고된 거리를 해결해 주길 간구하는 제사를 바친다.¹⁵⁾ 이러한 제사는 제왕과 관서의 관리들이 대부분 주재하였으며 민간에서는 주로 조상에게 제사를 바쳤는데, 일반 백성의 경우 부모와 조부모, 高祖와 曾祖까지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민간에서 바치는 제사는 감정이 우선하며 특히 부모나 조부모가 대상인 경우에는 그들과 함께 생활한 시간이 길기 때문에 깊은 애정과 양육에 대한 報恩의 정을 절실히 드러내었다.

3. 구양수 제문을 통해 본 변화 양상

1) 내용과 제재의 확대

① 망자에 대한 추도

歐陽修 祭文의 주류를 이루는 내용은 망자에 대해 슬퍼하고 위로하거나 神과 山川에게 간청하는 것인데, 그 중 망자를 추도하는 내용이 많다. 그의 『居士集』 內 祭文 25편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親友를 대상으로 한 9편의 문장은 표제에서 망자의 字號 등을 밝히고 그 외 16편은 망자의 직책과 신분을 드러내는 말로써 표제에 올렸다. 표제에서의 호칭을 통해 작자가 망자에 대해 느끼는 정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실제 작품에 있어서도 친우를 대상으로 한 작품에서 더욱 그 슬픔과 추도의 정이 강하게 드러난다.¹⁶⁾ 그 예로 「祭謝希深文」, 「祭薛質夫文」, 「祭尹子漸文」, 「祭蘇子美文」, 「祭梅聖俞文」, 「祭石曼卿文」 등을 들 수 있는데, 표면적으로 이미 字號 등을 씌으로써 친분의 정도를 드러내며 문장 안에서 살아생전 망자를 직접 만나 교류하였던 기쁨과 작자 자신이 직접 망자를 접하고 품었던 존경심, 불우함과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등을 서술하였다. 특히 작자와 망자가 맺고 있는 개인적인 교분이 강조되어 私的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망자에 대한 감정의 진솔함을 더욱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祭謝希深文」은 康定 元年(1040) 歐陽修 나이 34세에 滑州로 부임하던 때 쓴 글로 망자에 대한 애도의 감정이 면면히 흐른다.

오호라! 사공이여. 본성은 정성됨에서 밝고 그 올바른 도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는

16) 陳必祥 『古代散文體概論』(文史哲出版社, 1987) 206쪽에 의하면 哀祭文은 哀傷의 감정을 위주로 하므로 화려한 문사만을 쓰고 애통하지 않으면 훌륭한 哀祭文이라 할 수 없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히 悲哀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심지어 눈물까지 자아낼 수 있어야만 진정한 哀祭文이다. 따라서 우수한 哀祭文은 감정이 격렬하고 사람을 슬프게 감동시켜야 하며 이것이 곧 그것의 내용상의 주요 특징이다.

15) 劉擘原 鄭惠堅 『中國古代祭祀』(臺灣商務印書館, 1998) 25-160쪽 參照.

죽고 삶에 있어서 본디 이미 스스로 통달했지만 천하의 선비들이 탄식하여 마지 않는 까닭은 당시의 훌륭한 자를 애석해 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나 같은 무리는 사위의 교분이 있어 그 정이 친밀하고 의가 돈독하니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景祐 연간 초에 歐陽修가 峽州로 왔는데 공은 그 때 江東에 있어서 眞州로 서신을 보내어 그 아버지가 노쇠함을 슬퍼하고 자강하도록 면려하였습니다. 2년 후 다시 제가 漢水 가로 옮겼는데, 풍랑과 안개의 독기를 헤치며 만이천리를 지나서 공을 남양에서 만났습니다. 막 와서 공을 뵈오니 저를 맞아주시며 웃으셨는데, 저와 헤어져 지 오래인데도 그 모습이 예전과 같고 기운이 양양하심에 기뻐했습니다. 맑은 바람 부는 관사에서 경치가 빼어난 가을에 대숲 높게 우거진 곳에 앉아 몰마름풀의 맑은 향을 띄웠습니다.¹⁷⁾ 만나고 읊으로 돌아오니 영창에서 관직을 얻었습니다. 서신을 써서 알려 드리니 글을 써 주시고 기뻐 읊으셨습니다. 현직을 그만두고 돌아가지 않고 공이 계신 고을에 댁으로 왔습니다. 기쁘게 이야기 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갑작스레 침상으로 병문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닷새 동안 뵈지 못하였는데, 靈堂에 들어가 통곡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오호라! 사공이여, 나이가 중년(오십)을 넘기지 못하고 지위도 낭에 그쳤는데, 그 돌아가심에 곡하는 자들은 그를 위해 애달파 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를 위해 조문을 하며 혹은 그 집에 부의를 하고 혹은 그 상례에 힘을 더해줍니다. 아아! 선을 행한 효험이 이것을 얻을 따름이니 무엇을 슬퍼하리! 부귀함도 우연이요, 장수하고 요절함도 정해진 운명입니다. 어찌 많고 적음과 길고 짧음을 비교할 수 있으리오! 공이 갖고 계신 바는 그 언사는 글로 드러나며 행동은 일로 드러나며 재주는 쓰임에 드러나서 오랏수룩 더욱 드러납니다. 이는 우리들이 크게 한이 없을 수 있으며 군자들이 공이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활주 사람들이 와서 맞이하니 내 말이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즉시 가지 않은 것은 공 때문에 머뭇거리리는 것입니다. 처음 내가 장차 가려할 때 공이 나를 전별할 것을 기약했는데 지금 그가 떠남에 공에게 술잔을 와서 올립니다. 이 슬픈 말을 공은 들으십니까? 아니면 듣지 않으십니까? 다만 눈물만이 줄줄 흐릅니다. 상항!¹⁸⁾

17) 歐陽修가 謝希深과 梅堯臣을 南陽에서 만난 감회를 「答梅聖俞寺丞見寄」란 詩를 써서 풀어내었는데, 다음과 같다. “交情宛如舊, 歡意獨能強. 幸陪主人賢, 更值芳洲漲. 菱荷亂浮泛, 水竹涵虛曠. 清風滿談席, 明月臨歌舫. 已見洛陽人, 更聞畫樓唱.”

18) “嗚呼謝公! 性明于誠, 履蹈其方. 其于死生, 固已自達, 而天下之士所以嘆息而不可已者, 惜時之良, 況于吾徒, 師友之分, 情親義篤, 其何可忘? 景祐之初, 修走于峽, 而公在江東, 寓書眞州, 哀其親老, 而勉以自強. 其後二年, 再遷漢上, 風波務毒, 凡萬二千里, 而會公南陽. 初來謁公, 迎我而笑, 與我別久, 憐其貌若故而氣揚. 清風之館, 覽秀之涼, 坐竹林之修蔭, 泛水芰之清香, 及告還邑, 得官靈昌, 走書來報, 喜詠于章, 罷縣無歸, 來客公邦. 歡言未几, 遽聞于休, 不見五日, 而入哭其堂. 嗚呼謝公年不得中壽, 而位止于郎. 惟其歿也, 哭者爲之哀, 不識者爲之相吊, 或贈其家, 或助其喪. 嗟夫! 爲善之效, 得此而已, 庸何傷! 富貴偶也, 壽夭數也, 奚較其少多而短長! 若公之有, 言著于文, 行著于事, 材著于用, 既久而愈彰. 此吾徒可以無大恨, 而君子謂公爲不亡.”

謝希深의 이름은 絳이며 陳留 사람으로 열다섯에 진사 시험에 급제한 출중한 인물이다. 그는 歐陽修보다 스물 두 살이 연장인데, 歐陽修가 서경유수 시절 인연을 맺었으며 歐陽修의 친한 친구 매요신의 처형이기도 하다. 사강이 寶元 2년 4월 知鄧州가 되어 5월에 歐陽修, 매요신과 함께 열흘 동안 모여 시를 주고 받으며 지냈는데, 이 모임이 마지막 모임이 된 셈이다. 이 해 11월에 사강이 죽자 歐陽修가 그를 위해 「尚書兵部員外郎知制誥謝公墓誌銘」을 썼다. 이밖에도 范仲淹과 尹洙도 그를 위해 제문을 썼고 王安石도 「謝公行狀」을 썼다. 사강은 富陽人이며 그 부친 謝壽는 문장으로 세상에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문학으로 명성이 났으며 의론하길 좋아하고 時事를 담론하길 좋아한 인물로 전해진다. 진사 갑과에 응시하여 仁宗 때 여러차례 知制誥를 지냈고 判吏部太常禮院을 맡았다.¹⁹⁾ 평소에 사강은 歐陽修와 친분이 돈독하면서도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歐陽修의 그에 대한 존경심은 매우 컸다. 歐陽修는 이 문장 안에서 직접 그를 만난 사실을 서술함으로 써 그와의 깊은 인연을 실감나게 그려내고 아울러 그와의 헤어짐이 매우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사강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던 일, 어려움을 무릅쓰고 만나 감격하던 일 등을 말하여 자신과 친분이 돈독하고 평소에 사모했던 인물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갑자기 죽게 되어 그 슬픔이 더욱 컸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강이 이미 죽었지만 그의 훌륭한 언사와 행동을 존경하는 수많은 이들이 그가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여 망자를 위로하였다. 또 歐陽修가 타고 있던 말조차 사강을 떠나기 싫어서 북쪽으로 가려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신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매우 큼을 암시하였다.

② 天命의 인정

滑人來迎, 修馬當北, 而不即去者, 以公而彷徨. 始修將行, 期公饒我, 今其去也, 來奠公觴. 茲言悲矣, 公其聞乎? 抑不聞也? 徒有淚而浪浪, 尚饗!”

19) 『宋史·謝絳傳』: 初, 詔罷織密花透背, 禁人服用, 且云自掖庭始. 既而內人賜衣, 復取於有司. 又後苑作製珉器, 索龜筒於市. 龜筒, 禁物也, 民間不得有, 而索不已, 絳皆論罷之. 又言, 號令數變則虧國體, 利害偏聽則惑聰明. 請者務欲各行, 而守者患於不一. 請罷內降, 凡詔皆由中書, 樞密, 然後施行. 因進『聖治箴』五篇.

본래 유가는 이지를 숭상하고 운명의 신묘함을 믿지 않으며 종교와 신앙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歐陽修는 이러한 유가를 바탕으로 삼고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에 치중하는 유학자이므로 당연히 미신을 숭배하지 않으며 추정하거나 의심될 만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인물이다. 그러나 인생의 조우와 세사의 변화에 당면해서는 때때로 歐陽修와 같은 유학자도 흔들리게 된다. 劉子健은 이를 두고 歐陽修가 신앙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한 흔적이 느껴진다고 하였다.²⁰⁾ 歐陽修는 불교와 도교를 믿지 않았지만 신명의 보우를 구하기도 하였다.²¹⁾ 유가에서 말하는 天命은 공자가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歐陽修는 이에 대하여 공자가 이 문제에 대하여 약간의 토론은 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歐陽修는 공자가 天命의 존재와 의의에 대하여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그 오묘함을 인식한 것으로 간주했다.²²⁾ 공자가 답론을 적게 한 것은 의심과 근신의 태도로써 해석되며 천명으로써 인간에게 부여한 인간의 길흉화복은 항상 이치로 해석될 수는 없으므로 歐陽修는 천명을 아는 것이 아닌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표현한다.²³⁾

歐陽修는 본래 음양오행의 설로 經義를 해석하는 것을 반대하였지만 민간에서 유행하는 관상을 보는 것과 운명을 점치는 것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였다. 그리고 『瀧岡阡表』에서 그의 부친이 죽을 해를 미리 알고 있었던 일이나²⁴⁾ 소동파와의 대화에서 관상을 이야기했던 일²⁵⁾ 등을 통해서 歐陽修가 부인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 歐陽修의 친구 杜杞가 음양과 산술에 정통하여 자신이 46세에 죽을

거라고 점친 것이 그대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歐陽修는 미신을 따르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운명을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도 회의를 표현하기도 하는데,²⁶⁾ 정통 유학자의 입장에서 음양오행으로 命理를 해석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歐陽修는 인과응보로 명리를 해석하여 이후의 유학자들이 흔쾌히 그것에 동의할 수 있었다. 인과응보의 설은 윤회사상과 함께 원래 불교의 사상으로, 윤회사상이 유가와 전혀 맞지 않는 것과는 달리 유가의 陰德說과 부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선행을 쌓아 덕을 이루도록 면려하였다. 歐陽修는 이러한 음덕설과 인과응보설을 깊이 믿고 그 결과가 빠르고 더딤에는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나타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나아가 歐陽修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긍정하고 ‘天’이 그에 따라 응분의 보답을 할 것임을 믿었다. 그리고 ‘天’의 능력을 인정하고 인간으로서 불가항력인 일에 대한 안타까움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바로 송대 철학의 이성적 사고와 맞물린 데에 한 요인을 두며²⁷⁾ 세상의 이치를 파악하는 데에도 다분히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歐陽修의 사고는 그의 祭文 안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많이 표출된다. 그러한 예는 다음의 문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천과 신에게 비를 내리거나 그치게 해달라는 문장에서는 주로 ‘天’에 대한 불가항력을 안타까워 하고 망자를 추도하는 문장에서는 주로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天命’을 인정하고 天을 원망하지 않으며 스스로 省察하고 愆愆를 절제하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求雨祭文 은 寶元 元年(1038) 歐陽修 나이 32세에 쓴 글이다.

하늘이 이 백성을 감싸주시고 살려 주시는데, 어찌 그들을 가벼이 하시겠습니까?²⁸⁾

이 부분은 가뭄이 들어 비가 내리지 않자 天이 백성을 사랑하므로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말하는 대목이다.²⁹⁾ 가뭄이 극심하여 폐해가 속출하는

20) 劉子健 『歐陽修的治學與從政』(香港新亞研究所, 1963) .115-116쪽 參照.

21) 『居士外集回丁判官書』: 浮五千五百之江湖, 昌大熱而履深險, 一有風波之危, 則叫號神明以乞須臾之命.

22) 『居士外集·夫子罕言利命仁論』: 夫利, 命, 仁之爲道也, 淵深而難明, 廣博而難詳,……然罕言及者, 得非以利, 命, 仁之爲道, 微而與, 博而遠, 賢者誠明之, 不假言之道也, 愚者鮮能及之, 雖言之, 弗可曉也.

23) 『居士集·仲氏文集序』: 語稱君子知命, 所謂命, 其果可知乎? 貴賤窮亨, 用捨進退, 得失成敗, 其有幸有不幸, 或當然而不然, 而皆不知其所以然者, 則推之於天曰有命. 夫君子所謂知命者, 知此而已.

24) 『瀧岡阡表』: 歲行在戌, 將死

25) 蘇軾『東坡志林·卷三』: 歐陽文忠公嘗語, 少時有僧相我, 耳白於面, 名滿天下, 脣不著齒, 無事得謗. 其言頗驗.

26) 『居士集·兵部員外郎天章閣待制杜公墓誌銘』: 所謂命者, 果有數耶? 其果可以自知邪?

27) 張毅 『宋代文學思想史』(中華書局, 1995) 319-323쪽 參照.

28) “天之庇生斯民者, 豈欲輕爲之乎?”

29) 歐陽修 文集에서 求雨의 문장이 여러 편인데, 그 대상이 五龍神인 경우가 세 편, 漢高朝인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자연 현상이므로 그것의 해결은 오로지 天에 달려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靑州求晴祭文 은 회녕 2년(1069) 歐陽修 나이 63세 때 쓴 글로 계속되는 비 때문에 농사를 망치게 되어 비를 그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하늘이 지극히 인자하시어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음을 가련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그 간에 때로는 큰 풍년을 하사하여 보상해 주셨는데, 무릇 풍년을 얻기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하사해 주시고 또 그것을 갑자기 빼앗으시니 이는 하늘의 뜻도 아니요, 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도 아닐 것이옵니다.³⁰⁾

농사에는 여러 제반 요소가 필요하고 종자 및 인력의 작용이 중요함을 歐陽修가 몰랐을 리가 만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년 농사의 豐凶 역시 ‘天’의 뜻을 밝히고 아울러 백성을 사랑하시는 ‘天’이라고 하여 하늘을 달래고 거기에 매달리는 심정이 역력히 보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祭丁學士文 은 治平 4년(1067) 丁寶臣의 죽음을 애도한 제문으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

천명이 하늘에 달려 있으니 그대를 어찌 하겠으며 공자와 맹자께서도 역시 그리 하셨습니다. 어찌 그대를 위로하겠습니까? 애오라지 이 말만을 하여 한잔 술에 슬픔을 부치고 눈물이 흘러 내립니다.³¹⁾

오랫동안 성현으로 추앙되어 온 공자와 맹자도 죽음 앞에서는 하늘이 정한 운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정보신의 죽음은 더욱 더 천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경우가 세 편, 漢景帝, 張龍公, 張飛, 北嶽, 城隍인 경우가 각 한 편이다. 또 눈이 오기를 간청하며 九龍神을 대상으로 한 것이 한 편 있다. 또 날씨가 맑아지기를 간청하는 편으로 東嶽을 대상으로 한 것 두 편, 城隍을 대상으로 한 것 한 편, 沙水 태수를 대상으로 한 것 한 편 등이 있다. 劉子健은 『歐陽修的治學與從政』(香港新亞研究所) 에서 이들 문장을 일반적으로 佛教와 道教와 민간에서 여러 신을 섬기는 신앙을 융합한 결과로 보았다.

30) “天之至仁，憫斯民之若此也。故於其間，時賜一大豐之歲以償之，夫豐歲，可謂難得也。既賜與之，又遽奪之，此非天之意也，非神之欲也。”

31) “有命在天，其如予何，孔孟亦然，何以慰子，聊爲此言，寄哀一奠，有涕漣漣。”

고 하였다. 성현조차도 하늘이 정한 운명 앞에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음을 말하여 ‘天’의 역량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생의 遭遇와 世上事의 변화는 일반 사람들의 힘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天命이며, 天命을 이지적인 힘만으로 해석하기 어려움을³²⁾ 인정하였던 것이다.³³⁾

③ 人之常情의 강조

歐陽修는 天命에 대해 인간으로서 불가항력임을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운명이 전적으로 天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를 강조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느끼는 喜悲哀樂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人情을 넘어서서 어떠한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人之常情에 순행하는 도리를 역설하였다.

「祭石曼卿文 은 治平 4년(1067) 石延年³⁴⁾ 慶曆 元년에 죽어 歐陽修가 그를 위해 「石曼卿墓表」와 「哭曼卿」을 쓴 뒤 26년이 지난 후 지은 제문이다.

오호, 만경이여! 성쇠의 이치는 내가 진실로 이와 같음을 알지만 옛날을 추억하니 비절하고 애달롭니다. 나도 모르게 바람 곁에 눈물을 떨구는 것은 성인께서³⁵⁾ 인간의 情을 잊으시는 것에 부끄럽기 때문입니다.³⁶⁾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죽음에 임해서는 항상 슬피한다. 그러나 성인된 자는 그러한 인간사의 성쇠의 이치에 통달하여 희비애락의 감정에 초연하므로 儒者들은 수양을 통하여 그러한 성인의

32) 「哭聖俞」：命也難知理莫求。

33) 劉子健 『歐陽修的治學與從政』(香港新亞研究所, 1963) 117쪽 參照。

34) 石曼卿(994-1041)의 이름은 延年으로 宋州宋城人(지금의 河南商丘市)이다. 북송 시인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 歐陽修가 매우 애통해하여 그를 위해 묘표와 제문 등을 썼다.

35) 原文에는 ‘太上’으로 되어 있는데, 『世說新語傷逝』의 典故에서 나온 용어이다. 晉나라의 王戎이 아들을 죽이면서 “聖人忘情，最下不及情，情之所鐘，正在吾輩。”라고 한 데에서 나온 말이다. 이에 근거하여 太上은 곧 聖人으로 해석되며 성인이 감정에 동요하지 않는 경계를 말한다.

36) “嗚呼曼卿，盛衰之理，吾固知其如此，而感念疇昔，悲涼悽愴。不覺臨風而隕涕者，有愧乎太上之忘情。”

경지에 도달하고자 한다. 歐陽修도 유자로서 인간사의 성쇠의 이치를 잘 알고 있어 감정에 초연해야 함을 이성적으로는 판단한다. 그러나 절친한 친구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못이겨 절로 눈물을 떨구는 심정을 토로하였다. 더구나 이 글은 석연년이 죽은 지 26년이나 지나 쓴 것으로, 망자가 죽고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歐陽修가 그 슬픔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 매우 인간적이다. 이는 歐陽修가 감정의 절제를 위한 인간의 수양을 지향하지만 자신도 역시 막역지우를 추도하며 슬피 눈물을 흘린다고 하여 인간 본연의 감정에 충실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祭程相公文 은 至和 3년에 程琳을 위해 쓴 글이다.

죽음과 삶이 갑작스런 것은 자고로 늘 그러하였습니다. 관을 어루만지며 결별하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³⁷⁾

歐陽修가 인간의 생사가 예고 없이 진행되는 이치를 터득하고 있어 망자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생사의 이치를 터득한 것은 물론 그 죽음이 갑작스런 결과까지 받아들이는 수양의 도리를 말하면서도 망자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무언 중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歐陽修가 직접 소리내어 통곡하지는 않고 있지만 거기에는 죽음에 대한 슬픔이 들어있다.

「祭資政范公文 은 皇祐 4년(1052) 范仲淹의 죽음에 대한 울분과 슬픔을 토로한 제문이다.³⁸⁾

오호라, 공이시여! 옛 것을 배우고 지금에 거하니 네모난 것을 가지고 둥근 것에 집어 넣은 것 같았다. 공자와 맹자의 어려움은 그 도가 그러한 것이었다. 공이 그가 나쁘다고 말하면 공이 험뜯기를 좋아한다고 하고 공이 그가 선하다고 말하면 공이 봉당을 세운다고 하였다. 공이 용감하게 행하면 공이 조금하게 나아간다고 하고 공이 물러나 양보하면 공이 명성에 가까이한다고 하였다. 모함하는 자들의 말을 어찌 들을만한가! 일에 앞서 지적하면 무리들이 의론하고 못사람들이 배척하였고 일어나 생각하면 원수들이 재주가 있다고 말하였다. 훼손시켜도 나를 상하게는 못하고 칭찬하여도 나를 기쁘게는 못하였다. 나가고 물러남에 절도가 있어 평탄하면 행하

고 험하면 멈춘다.

오호라 공이시여! 온 세상의 선한자들이 누가 공의 무리를 비난하는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자들이 많아 공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구나. 선한자들이 악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어찌 그러한가? 이루기는 어렵고 훼손되기는 쉬우니 이치가 또 그러한 것인가.

오호라 공이시여.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자 먼저 서까래를 꺾고 등지를 기울이고 새끼 새를 해치고자 걸가지를 꺾는다. 하나를 해쳐 백을 손해보니 사람들 중 누가 걱정을 하지 않겠는가? 누가 올바른 의론을 하여 이것을 불인하다하는가!

오호라 공이시여! 이름을 바꾸고 시호가 행해짐은 군자의 영광이다. 살아서는 무엇을 비난받고 죽어서는 무엇을 칭찬받는가? 죽음을 좋아하고 삶을 싫어하는 것은 아마도 인지상정이 아니다. 어찌 그 삶에 싫어함이 있고 죽음이 다투는 바가 없겠는가? 공이 죽은 이후 비방은 변론할 필요 없이 오랬수록 더욱 분명해지니 지금 알 수 있다. 처음에 급하고 나중에 퍼니 공은 한이 없을 것이다. 평생 마음에 품은 바를 써서 이에 기탁하여 초라한 제사를 올린다.³⁹⁾

인간은 누구나 삶을 원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이치를 설명하고 옳고 그름은 결국 밝혀진다는 도리를 말하였다. 삶과 죽음에 연관된 인간의 喜怒哀를 인정하고 인간의 善惡이 시간이 지나면서 절로 드러나게 마련인 것을 말하고 있다.

「祭蔡端明文 에도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오호라, 번성하면 반드시 쇠하기 마련이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 만물의 이치이다. 생이 즐겁고 사가 슬픈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불행한 것이 있으니 의당 영원히 한이 된다.⁴⁰⁾

만물의 성쇠의 이치를 歐陽修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

39) “嗚呼公乎! 學古居今, 持方入圓. 丘, 軻之艱, 其道則然. 公曰彼惡, 謂公好訐, 公曰彼善, 謂公樹朋. 公所勇爲, 謂公躁進, 公有退讓, 謂公近名. 讒人之言, 其何可聽! 先事而斥, 群議衆排. 有事而思, 雖仇謂材. 毀不吾傷, 譽不吾喜. 進退有儀, 夷行險止. 嗚呼公乎! 舉世之善, 誰非公徒? 讒人豈多, 公志不舒? 善不勝惡, 豈其然乎? 成難毀易, 理又然歟? 嗚呼公乎! 欲壞其棟, 先摧榑榱, 傾巢破殼, 披折傍枝. 害一損百, 人誰不懼? 誰爲黨論, 是不仁哉! 嗚呼公乎! 易名諡行, 君子之榮. 生也何毀, 歿也何稱? 好死惡生, 殆非人情. 豈其生有所嫉, 而死無所爭? 自公云亡, 謗不待辨. 愈久愈明, 由今可見. 始屈終伸, 公其無恨. 寫懷平生, 寓此薄奠.”

40) “嗚呼! 盛必有衰, 而生必有死, 物之常理也. 生爲可樂, 死爲可哀, 人之常情也. 而又有不幸於其間者, 宜其爲恨於無窮也.”

37) “死生忽焉, 自古常然. 撫棺爲訣, 夫復何言!”

38) 浦起龍「古文眉詮卷六十二」: 全爲羅黨論抒憤, 言之不足, 長言之也, 輒方而輪圓, 祭文中正體逸調.

한 사실에 통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生은 즐겁고 死는 슬픈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불행은 당하면 한이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은 유자로서 인격 수양을 추구하는 입장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즉 ‘人之常情’의 지극히 현실적이고 평범한 진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韓愈의 敬天思想과는⁴¹⁾ 달리 ‘天’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절제하고 인간의 生老病死와 喜怒哀樂에 대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④ 愛民의 정신

일반적으로 祭文의 가장 큰 특징은 서정이 풍부하다는 것인데, 歐陽修 역시 이 점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는 祭文을 썼다. 그럼에도 그는 후대 학자들의 평가대로 儒家的 道德 文章의 대표자인 만큼⁴²⁾ 道家와 佛家를 반대하고 儒家的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유가 정치의 理想과 愛民 정신을 한껏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산천과 신에게 비를 내리거나 그치게 해달라는 간청을 올리는 내용의 祭文에 있어서 그의 관리로서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반성의 태도가 매우 진지하며 아울러 백성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는 위정자의 典範을 보여주고 있다.

「求雨祭文 은 寶元 元年(1038) 歐陽修 나이 32세 때 쓴 글이다.

홍수와 가뭄의 재난으로 관리를 꾸짖지 않고 신께 고합니다. 오호라! 백성이 불행히도 그 재난을 당했습니다. 저도 신과 더불어 또 불행히도 당사자가 된 것은 저는 관리로 그 록을 먹고 신은 그 제사를 향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가뭄이 들어 현령이 비록 어리석어도 오히려 두려워 분주히 할 줄은 압니다. 신께서는 지극히 영험하시니 마음에 감동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⁴³⁾

歐陽修가 관리된 자로서 백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비를 내려 달라고 신에게

간청하는 대목이다. 관리는 녹을 먹고 신은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신을 설득하고 가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신을 깨우치고 감동시키는 것임을 말하였다.

「求雨祭漢景帝文 은 寶元 元年(1038) 歐陽修 나이 32세에 쓴 글이다.

저는 죄가 있어서 이곳에서 현령이 되었으니 의당 백성에게 신을 섬길 것을 권하여 그 직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현령이 백성을 다스리고도 옥사의 소송을 밝히지 못하고 또 백성의 위급함을 구해주지 못하여 현으로부터 십여리 떨어진 곳으로 왔습니다. 무릇 백성의 일도 모두 알 수 없고 어리석게 신을 모시는 일에도 태만하였으니 이 모두가 저의 죄이며 또 좌천되어 와서 현령된 죄보다 더 심합니다.⁴⁴⁾

가뭄이 들어 신에게 제사를 바치면서 자신이 현령으로서 직무에 태만하였기 때문에 백성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며 스스로 자책하고 있다.

「青州求晴祭文 역시 백성을 사랑하는 歐陽修의 마음을 담고 있다.

유 모월 모일 구관 歐陽修가 삼가 맑은 술을 올리며 동악천제인성제에게 고해 바치며 말씀드리웁니다. 무릇 보리라는 것은 사계절을 다 지낸 후에야 열매를 맺으니 무릇 소위 생육, 장생, 성취의 공은 지극하다 할 수 있다. 사계절의 공으로 그것을 이루는데 며칠간의 비로 그것을 망치니 이는 하늘의 뜻이 아니고 신이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농사일에 각고의 노력을 부지런히 하는데 홍수와 가뭄의 재해와 메뚜기의 재앙으로 풍년은 항상 적고 흉년은 항상 많아서 얻은 바로 항상 잃은 바를 보충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지극히 인자하시니 우리 백성들이 이와 같음을 가련히 여기시므로 그 간에 때때로 큰 풍년을 하사하시어 보상해 주셨습니다. 무릇 풍년은 얻기 어렵다 할 수 있으니 이미 하사해 주고는 또 갑자기 빼앗아가시니 이는 하늘의 뜻이 아니며 신이 바라는 바도 아닙니다. 지금 밭에 있는 것으로 이삭이 수그러져 들을 덮고 마당에 있는 것으로 그 쌓은 바가 언덕과 같으니 백성이 이리저리 다니며 보고도 이삭에 손을 댈 수 없고 쌓인 것을 창고에 들여 놓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날아가 버리게 되었으니 어찌 애석해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늘의 뜻이 아니며 신이 바라는 바도 아닙니다. 오로지 신의 영험함으로 열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을 빌어 하늘이 크게 하사한 것을 이루시고 때에 맞추어 수확할 수 있게

41) 「與崔群書」：合於天而乖於人，何害？ / 「閔已賦」：久拳其何故兮，亦天命之本宜。 / 「韓詩繫年集釋卷一」：天命不吾欺。 / 「君子法天運」：君子法天運。

42) 郭預衡 『中國散文史』(山西教育出版社, 1991) 371쪽 參照。

43) 「求雨祭文」：水旱之災，不以責吏，則以告神。嗚呼。民不幸而罹其災。修與神又不幸而當其事者，以吏食其祿而神享其祀也。今歲旱矣，令雖愚，尚知恐懼而奔走。神至靈也，得不動於心乎。

44) 「求雨祭漢景帝文」：修以有罪，爲令於此，宜勤民事神以塞其責，令既治民，獄訟之不明，又不救民之所急，至去縣十餘里外。凡民之事，皆不能知，頑然慢於事神，此修爲罪，又甚於所以來爲令之罪。

하시어 백성이 풍족하게 먹고 나라가 풍족하게 쓸 수 있게 하십시오. 이는 즉 신의 영험함에 힘입어 열흘 동안의 짧은 시간을 빌어 구주 수천리의 땅에 공과 사가 모두 그 하사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대개 빌린 것은 적어도 이익된 것은 많으므로 감히 청하옵니다. 상항.⁴⁵⁾

신에게 가뭄의 재해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그 안타까운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이삭은 고개를 떨구고 시장에서는 팔 물건이 없고 곡간에는 쌓은 것이 없어 피폐되어 가는 모습을 말하고 이러한 혹독한 생활고는 하늘과 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달래고 있다.

2) 敍述構造의 변화

祭文은 祭祀라는 특정 양식을 매개로 하여 祭奠하는 자와 그 대상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기본적으로 양자 간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며 대개는 그 대상이 듣고 반응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대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제사를 바칠 때 그 祭文을 읽게 되면 제사의 장소에 모인 다른 사람들이 듣거나 후에 문장으로서 널리 읽게 된다. 따라서 祭文은 그 대상과 현재 살아 있는 자들에게 동시에 감동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처음에 반드시 '惟(歲次) 某年某日'을 필두로 하고 祭奠하는 동기와 祭奠하는 자의 성명, 장소, 시간 등을 밝히는 도입부를 둔다.⁴⁶⁾ 이 부분은 바로 그 대상을 염두에 둔 까닭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 다음으

45) “維年月日，具官修謹以清酌之奠致告于東嶽天齊仁聖帝而言曰，夫麥之爲物，歷四時而后實，凡所以生育長養成就之功，可謂至矣。以四時之功而成之，以數日之雨而壞之，此殆非天之意也，非神之欲也。農服耒耜，有勞筋苦骨之勤，而水旱之災，螟蝗之孽，豐歲常少而凶歲常多，所得常不補其所失。天之至仁，憫斯民之若此也，故於其間，時賜一大豐之歲以償之。夫豐歲可謂難得也，既賜與之，又遽奪之，此非天之意也，非神之欲也。今在田者垂穗而蔽野，在場都其積而如坻，民彷徨而視之，穗者不得施其手，積者不得入于廩，使皆化爲羽翼而飛揚之，豈不可惜也哉！此非天之意也，非神之欲也。惟神之惠，假以十日之不雨，以成天之大賜，使收獲得以時，而民足食，公足用。是則賴神之靈，假之旬浹之頃，而九州數和吉里之地，公私皆受其賜矣。蓋所假者少而所利者多，故敢以爲請。尚饗！”

46) 陳必祥『古代散文體概論』(文史哲出版社, 1987) 208쪽에 의하면 초기 祭文은 제사를 지낼 때 먼저 낭송하여 망자의 영혼이 와서 재수품을 享受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維年月日，xxx

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대상과 청자 및 독자 모두에게 호소할 수 있으므로 작자의 주된 감정과 요지가 충분히 표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글이 마무리되는 부분으로 제사를 바치므로 흠향하길 바란다는 뜻의 ‘尙饗’를 덧붙인다.

歐陽修 祭文 37편을 검토해 보면 그 중 20 여 편에 달하는 祭文의 도입부에서 제전하는 연월일을 생략하였으며 그 나머지 중에서도 정확한 날짜를 표기한 것은 「祭程相公文」, 「祭杜祁公文」, 「焚黃祭文」, 「英宗皇帝靈駕發引祭文」, 「祭石曼卿文」, 「祭胡太傅文」, 「祭劉給事文」 등 7편에 불과하다. 또한 「修城祈晴祭五龍文」, 「又祭城隍神文」, 「又祭漢高祖文」, 「祭資政范公文」, 「焚黃祭文」, 「英宗皇帝靈駕發引祭文」의 경우에는 ‘尙饗’이 없으므로 결국 祭文에서 격식상 꼭 명기되어야 하는 年月日과 ‘尙饗’의 두 글자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 문장은 겨우 6편일 뿐이다. 게다가 「修城祈晴祭五龍文」, 「又祭城隍神文」, 「又祭漢高祖文」, 「祭資政范公文」 등은 도입부와 결말부가 모두 없고 단지 본문 내용만이 보인다.

이상에서 歐陽修가 祭文을 쓸 때 그 격식에 크게 얽매이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상투적인 祭文의 틀에서 벗어나 제전의 대상과 주제에 따라 변화있는 서술 구조를 사용하였는데, 특히 도입부와 결말부가 모두 부재하는 몇 편의 문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修城祈晴祭五龍文」은 그저 짧은 한 단락의 문장으로 지나치게 비가 많이 와서 농사를 망치고 있으니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룡에게 고하는 내용이다. 표면적으로는 전혀 祭文임을 알 수 없고 다만 본문 내용을 살펴야만 祭文임을 알 수 있다.⁴⁷⁾ 「又祭城隍神文」과 「又祭漢高祖文」 역시 마찬가지로 짧은 문장 속에 간략하게 주제만을 서술하고 있어 祭文의 격식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⁴⁸⁾ 「祭資政范公文」은 도입부 없이 바로 ‘嗚呼’를 내세운 네 단락으로 구성되는데, 朋黨을 이룬다고 모함하는 자들에게 당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망자의 영예로운 행위를 칭송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결말부가 없고 다만 ‘초라하게 바친다(薄奠)’

謹以清酌庶羞之奠，祭于xxx之墓下’와 같은 격식 하에 말미에 ‘嗚呼哀哉，尙饗’이라 썼는데, 후대에 오면 직접 낭송은 하지 않게 되지만 그러한 격식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47) 註 560) 參照.

48) 註 554)과 註 552) 參照.

라는 말로써 대신하고 있다.⁴⁹⁾ 이는 바로 상투적인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嗚呼’를 부르짖는 안타까운 작자의 심정을 더욱 부각시킨 데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결국 제사의 형식이나 절차를 암시하는 대목은 일단 배제됨으로써 본문 내용에 그 초점이 모여지는 것이다. 歐陽修의 祭文은 외형적으로는 祭文의 고정된 틀에서 많이 탈피하였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祭文의 목적과 의의를 충분히 살려주는 구성과 기교로써 그 특성을 보존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祭文은 죽은 자를 위로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추도의 情이 구슬프게 만연해 있고 그러면서도 천편일률적인 되풀이가 아닌 망자의 업적이나 인품 및 다른 특징에 따라 재구성되며 추도의 내용 또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의 祭文은 망자에 대한 애도의 감정은 일관되지만 망자에 대한 기술 부문에 있어서는 결코 동일한 구조로 서술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서술 구조는 자연 祭文의 내용을 자유롭게 하여 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개성있게 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抒情的 표현의 특징

歐陽修의 祭文은 간결하게 기도하거나 죽은 자를 애도하는 내용을 위주로 하므로 비통한 감정을 주로 담고 단연 抒情性이 매우 뛰어나다 하겠다.⁵⁰⁾ 抒情的인 문장의 특징은 작자의 個性의이고 主觀的인 정서가 필수인데, 이러한 특징은 바로 정감이 풍부한 언어 표현에 의해서 나타내어진다.⁵¹⁾ 歐陽修는 이 점에서 긴밀한 구성과 간결하고 아름다운 표현 등을 강구하였으며 그의 문장을 짓는 태도는 매우 엄숙하였다.

祭文에서는 특히 감탄사를 즐겨 썼는데, 이는 망자의 죽음에 대한 애통함이 문장 전체를 감도는 요인의 하나가 된다. 가장 많이 쓴 감탄사는 ‘嗚呼’인데, 「祭薛質

夫文」, 「祭蘇子美文」, 「祭程相公文」 등 6편은 한 차례, 「祭尹子漸文」, 「祭蔡端明文」 등 5편은 두 차례, 祭尹師魯文 과 祭石曼卿文 은 두 차례, 祭資政范公文 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嗚呼’를 부르짖음으로써 그 애통함의 강도를 충분히 표현해 내고 있다. 본문 네 단락이 각기 봉당으로 참언 당한 억울함, 세상의 이치, 봉당의 타당함, 망자에 대한 존경심 등이 감탄구를 매개로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嗚呼公乎!’를 매 문단의 서두에 두어 비통의 감정을 고조시킨 후 범중엄의 의로운 행동, 그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억울함, 죽은 후의 영화로움 등을 서술하고 있다. 마치 망자의 심정을 그대로 말해주는 듯한 어조로 억울한 울분을 ‘嗚呼’를 통해서 내뱉고 그 사연을 조목조목 이야기하여 죽은 이의 가슴깊이 맺힌 한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망자가 비록 죽었으나 여한이 없다하여 담담하게 위로하고 있다.⁵²⁾

「祭尹子漸文」은 ‘嗚呼’, ‘嗟乎’, ‘嗟此奠之一觴’의 세 개의 감탄구를 쓰고 있다.

오호라! 하늘이 만물과 우리 인간을 만들어 내셨도다.....아아, 자점이여! 내가 유독 한이 있다. 내가 그대를 보지 않은 지 지금까지 얼마나 되었는가? 그대가 회주의 지사가 된 후로 비로소 만날 기약이 있었다. 그대가 올 수 없어서 내가 빨리 가고자 했다. 그대는 지금 어디로 돌아갔으며 내가 어딜 가서 찾으랴. 옛날 내가 조정에 있을 때 간관과 시종은 직분이 의당 현인을 추천하는 것인데 그대를 알고도 천거하지 않았다. 봉당의 모함에서 진실로 풍자를 피해야 한다. 둘이서 서로 알고 지내 익숙하여 편지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음성이 영원히 떨어져서 울어도 들리지 않고 다만 슬픔 뿐이다. 아! 이 바치는 술 한잔으로 기쁜 말로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 가서 미치지 못하고 쫓기 어려우니 말로써 애달파하고 영원히 보낸다. 상향.⁵³⁾

먼저 ‘嗚呼’를 써서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통탄하고 이어 다시 ‘嗟乎’를 써서 윤자점의 회한을 가슴 아파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그를 천거하여 정사를 이루지 못한 사실을 후회하며 ‘嗟此奠之一觴’을 써서 곡성마저 들

52) 註 545) 參照.

53) “嗚呼! 天於生萬物與吾人.....嗟乎子漸, 吾獨有恨! 我不見子, 於今几時? 子自得懷, 始有見期. 子不能來, 我欲亟往. 子今安歸, 我往何訪? 昔我在朝, 諫官侍從, 職當薦賢, 知子不貢, 朋黨之誣, 苟避讒諷, 兩相知而以習, 謂尺書之不用. 遂聲音之永隔, 哭不聞而徒慟. 嗟此奠之一觴, 冀歡言之可共. 往莫及兮難追, 哀以辭而永送. 尚饗!”

49) 註 545) 參照.

50) 劉德清, 『歐陽修論稿』(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1) 253쪽.

51) 蘭羨璧 『文章學』(南開大學出版社, 1985) 226쪽 參照.

리지 않는 시점에서 술 한잔을 바치고 망자의 한을 달래고 있다.

「祭尹師魯文」은 慶曆 8년(1048)에 쓴 글이다. 慶曆 7년(1047) 尹洙가 均州로 폄직 되었는데, 당시 나이 46세였다. 歐陽修는 정치 활동과 고문 운동 중에 그와 교분을 맺은 관계로 「윤사로묘지명」을 먼저 썼다. 그 문장 안에서 윤수의 죽음에 대한 비통함을 기술하고 인격의 훌륭함을 칭송한 바 있다. 이 문장에서는 주로 윤수의 죽음에 대한 歐陽修의 심정을 그려내고 있는데, 세차례에 걸쳐 「嗚呼」를 문단의 첫머리에 내어 놓아 독자의 마음을 잠시도 비통함에서 내려 놓지 않는다. 먼저 윤사가 죽어 처량하고 쓸쓸하게 산짐승과 귀신을 벗어나 지내는 신세를 통탄하고, 구체적으로 그의 죽음의 경위와 생전의 모습을 추억해내며 그리워하고 다시한번 탄식한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모든 만물은 죽어 사라지지만 성현의 문장과 영화로움은 별과 해처럼 영원히 빛난다고 하며 망자를 위로하고 있다.⁵⁴⁾

祭石曼卿文은 治平 4년(1067) 歐陽修가 觀文殿學士, 刑部尙書知亳州였을 때 쓴 글이다. 석연년은 일생 동안 불우했고 뜻을 얻지 못하였는데, 歐陽修와의 교분이 매우 두터웠다. 이 제문을 쓸 때는 歐陽修의 나이 이미 60이었고 석연년이 죽은 후 26년이 되던 해였다. 歐陽修는 벼슬살이의 환난을 다 거친 만년에 고독하고 적막함에 일생을 회고하며 오래 전에 떠나간 옛 친구에 대한 슬픔의 정을 토로했다.

오호 만경아! 살아서는 영결이요, 죽어서는 신령이 되었다. 만물과 생사를 같이하다가 다시 無物로 돌아가는 것은 잠깐 모여든 형체요, 만물과 함께 다하지 않고서 뛰어난 썩지 않는 것은 후세에 남는 이름이로다. 이것은 자고로 성현들도 모두 그러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해와 별처럼 빛난다.

오호 만경아! 내가 너를 보지 못한 지 오래 되었는데, 여전히 너의 평소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기개가 비범하고 형상이 높고 크며 심지가 밝았으며 우뚝 솟아 빼어나니, 지하에 묻는 것이 아마도 썩은 흙으로 변화하지 않고서 금옥의 정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니면 일천척 크기의 장송으로 되어 영지를 낳아 아홉 줄기로 될 것이다. 어쩌다 황량한 데 안개 자욱하고 들에 덩굴이 얽히고 가시나무가 종횡으로 뻗었으며 바람이 쌀쌀하고 이슬이 내리며 귀신불이 내달리고 반딧불이 난다. 다만 목동과 초수가 노래를 읊으며 오르내리고 놀란 새와 짐승들이 슬피 울며 머뭇거리며 재잘거리다. 지금 진실로 이와 같으니 천년 만년이 다시 흐르면 여우와

오소리가 날다람쥐와 구멍을 파고 숨지 않을 줄을 어찌 알겠는가? 자고로 성현도 역시 모두 그러하니 홀로 저 연이은 광야와 황폐한 성들을 보지 못하는가!

오호 만경아! 성쇠의 이치가 나는 진실로 이와 같음을 아니 지난 날을 생각하고 느껴 슬프고 처량하다. 나도 모르게 바람을 맞아 눈물을 떨구는 것은 성인들이 인간의 정을 잊은 것에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이다. 상항.⁵⁵⁾

감탄구를 서두로 본문이 세 단락으로 구성되는데, 처음에는 망자가 영혼이 되어 불멸한다는 내용, 그 다음은 망자 무덤가의 황량함으로 인한 서글픔, 마지막은 성쇠의 이치를 수궁하지만 슬픔을 견디기 어려운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⁵⁶⁾ 이 세 단락의 내용이 서로 감탄구를 매개로 해서 연결되어 있다. 이는 감탄구를 삽입함으로써 내용의 급전에 따른 위험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며 격한 감정을 그대로 유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祭文의 중간 중간에 수시로 등장하는 이러한 감탄사는 슬픔과 통한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죽음을 환기하고 한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사실과 감정을 죽음과 그로 인한 슬픔으로 집중시키는 것이다.

「嗚呼」 외에도 「祭尹師魯文」에서는 「嗟乎」를 세 번 쓰고 「祭蘇子美文」에서는 「哀哀」와 「嗟乎」를 함께 쓰고 「祭薛質夫文」에서는 「嗟」와 「嗚呼」를 함께 쓰는 등 혹은 반복해서 쓰고 혹은 다른 감탄사를 바꿔 써서 문장 전체에 줄곧 비통한 분위기를 감돌게 하였다.

아아, 나의 일부여. 그 행동이 풍요하고 살찼는데도 누린 것은 보잘것없다. 줄기와 꽃이 비록 피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랐다. 선악과 우현함에 부신이 있지

55) “維治平四年七月日, 具官歐陽修謹遣尙書都省令史李揚至于太清, 以清酌庶羞之奠, 致祭于亡友曼卿之墓下, 而吊之以文曰, 嗚呼曼卿! 生而爲英, 死而爲靈, 其同乎萬物生死而復歸於無物者, 暫聚之形, 不與萬物俱盡而卓然其不朽者, 后世之名. 此自古聖賢, 莫不皆然, 而著在簡冊者, 昭如日星. 嗚呼曼卿! 吾不見子久矣, 猶能仿佛子之平生. 其軒昂磊落, 究兀崢嶸, 而埋葬於地下者, 意其不化爲朽壤, 而爲金玉之精, 不然生長松子生動活潑尺, 產靈芝而九莖, 奈何荒烟野蔓, 荆棘縱橫, 風淒露下, 走磷飛螢, 但見牧童樵叟, 歌吟而上下, 與夫驚禽駭獸, 悲鳴蹙而呼嚶. 今固如此, 更千秋而萬歲兮, 安知其不穴藏狐貉與麋生? 此自古聖賢亦皆然兮, 獨不見夫累累乎曠野與荒城? 嗚呼曼卿! 盛衰之理, 吾固知其如此, 而感念疇昔, 悲涼淒愴, 不覺臨風而隕涕者, 有愧乎太上之忘情. 尚饗!”

56) 孫琮「山曉閣唐宋八大家選歐陽處陵」: 此文三提曼卿, 分三段看. 第一段許其名垂後世, 寫得卓然不磨, 第二段悲其生死, 寫得淒涼滿目, 第三段自述感傷, 寫得唏噓欲絕, 可稱筆傳神.

54) 註 504) 參照.

는 않다. 보답이 혹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누구에게 죄를 씌워 죄를 돌아가게 하는가. 공자의 지혜로 하늘에 통달하여 말하였다. “천명이여.” 성인에게 있어서도 오히려 의심하니 하물며 우리 같은 무리에 있어서야! 오, 나의 질부여. 어머니는 연로해서 상복을 이길 기력이 없고 부모를 그리워하며 고통하려 해도 어린 자식이 없다. 술잔을 올려 결별을 하니 끝이로구나. 오호라, 상향.⁵⁷⁾

작자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많이 드러내는 또 하나의 방법은 反問인데, 매 편의 문장마다 反問의 구가 수차례 나온다.

「祭資政范公文」에서는 여러 개의 반문구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감정의 고조를 지탱하고 있다.

은 세상의 선한자들이 누가 공의 무리를 비난하는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자들이 많아 공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구나. 선한자들이 악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어찌 그러한가? 이루기는 어렵고 훼손되기는 쉬우니 이치가 또 그러한 것인가.

하나를 해쳐 백을 손해보니 사람들 중 누가 걱정을 하지 않겠는가? 누가 올바른 의론을 하여 이것을 불인하다 하는가!

이름이 바뀌고 시호가 행해지니 군자의 영광인데, 삶도 얼마나 훼손되었으며 죽음도 얼마나 칭송되는가? 죽음을 좋아하고 삶을 싫어하는 것은 아마도 인정이 아닐진대, 어찌 삶에 싫어하는 바가 있으며 죽음에 다투는 바가 없겠는가?⁵⁸⁾

세 곳에서 반문의 구를 쓰고 있는데, 두 개 혹은 세 개의 반문을 연달아 하고 있다. 歐陽修는 범중엄이 인의를 행하였으나 모함을 받아 손해를 보았던 억울함을 호소하고 살아서의 불행과 죽어서의 영광을 대비하여 반문하였다. 잦은 반문과 연달은 반문의 구는 감정을 가라앉히지 않고 계속 고조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57) “嗟吾質夫! 行豐而腴, 乃享其羶. 莖華雖敷, 不葑而枯. 善惡賢愚, 非有契符. 報或一差, 咎誰歸辜! 孔智通天, 曰命矣夫. 在聖猶疑, 況於吾徒. 嗟吾質夫! 母不勝縑, 慕無孺孤. 奠觴爲訣, 已矣嗚呼! 尙饗!”

58) 「祭資政范公文」: 舉世之善, 誰非公徒? 讒人豈多, 公志不舒. 善不勝惡, 豈其然乎? 成難毀易, 理又然歟? / : 害一損百, 人誰不罹? 誰爲讖論, 是不仁哉! / : 易名謚行, 君子之榮, 生也何毀, 沒也何稱? 好死惡生, 殆非人情, 豈其生 有所嫉, 而死無所爭?

「祭尹師魯文」에서도 역시 세 군데에서 반문의 구를 쓰고 있다.

어찌 능히 그러한가? 이에 배움의 힘이다.

그대가 떠나간 후로 선한 사람들은 의당 슬퍼하는데, 그대가 능히 스스로 달의하니 내가 또 무엇을 슬퍼하리?

그대를 위로하길 바라는데, 들리십니까 들리지 않으십니까?⁵⁹⁾

먼저 반문을 하고 나중에 거기에 답하는 형식을 쓰기도 하고 운수가 달의하였으므로 슬퍼할 것이 없다는 내용을 반문을 통해 강조를 하기도 하였다. 또 제문의 마지막에 歐陽修 자신의 운수를 위로하는 말이 들리는지 들리지 않는지를 반문하여 애통한 마음을 더욱 격양시키고 있다.

「祭梅聖俞文」에서도 반문을 통해서 매요신과의 우정과 그에 대한 추도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관리라고 하는 자들이 이르는 바가 모두 그리하거늘 단지 즐거움을 행해야 하니 어찌 우환이 있겠는가?

그대가 인자하니 의당 장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불기름에 비유하니 환난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일이 지금 이렇게 돌아와 그 이치는 진실로 알기 어려우니 하물며 부귀에 있어서는 또 반드시 기약할 수 있는가?⁶⁰⁾

우의가 돈독하였던 벗의 죽음을 당하여 비통함을 말하고 반문을 통하여 기약하기 어려운 생사의 이치를 서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

「祭石曼卿文」에서도 石延年의 죽어 그 뼈와 살이 썩어 들짐승에게 파헤쳐지는 참담함을 반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지금 진실로 이와 같으니 천년 만년이 다시 흐르면 여우와 오소리가 날다람쥐와

59) 「祭尹師魯文」: 夫何能然? 乃學之力. / : 自子云逝, 善人宜哀, 子能自達, 予又何悲? / : 冀以尉子, 聞乎不聞?

60) 「祭梅聖俞文」: 謂焉仕宦, 所至皆然, 但當行樂, 何以憂患? / : 謂子仁人, 自宜多壽, 余譬膏火, 煎熬豈久? 事今反此, 理固難知, 況於富貴, 又可必期?

구멍을 파고 숨지 않을 줄을 어찌 알겠는가? 자고로 성현도 역시 모두 그러하니 홀로 저 연이은 광야와 황폐한 성들을 보지 못하는가!⁶¹⁾

시신이 썩어 문드러지고 세월이 오래 흐르면 들짐승들이 넘나들며 구멍을 파게 되는 상황을 반문하고 성현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 황폐함이 눈에 생생하게 그려지도록 재차 반문하고 있다.

이 외에도 「祭謝希深文」, 「祭蘇子美文」 등에서도 反問을 통해 감탄처럼 말하여 감정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기도 하고 함축하기도 한다.⁶²⁾

歐陽修는 또한 ‘而’, ‘也’, ‘者’, ‘矣’, ‘哉’, ‘焉’, ‘然’, ‘則’ 등의 虛字를 多用하여,⁶³⁾ 어음의 효과로 곡절한 음률을 자아내어 그 기탁된 정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虛字를 사용함으로써 문장을 반복해서 읽어도 싫증나지 않고 중간에 끊어지는 느낌이 없이⁶⁴⁾ 호흡 조절을 알맞게 할 수 있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예로 祭石曼卿文 을 보도록 하자.

嗚呼曼卿，生而爲英，死而爲靈。其同乎萬物生死而復歸於無物者，暫聚之形。不與萬物共盡而卓然其不朽者，後世之名。此自古聖賢莫不皆然而著在簡冊者，昭如日星。

이 단락의 매구마다 무려 虛字가 두세 차례씩 발견된다. 그리고 對偶의 사용이 빈번하며 장단구를 엮어서 배치함으로써 낭송의 묘미를 살려준다. 여기에서 短, 短, 短, 長, 短, 長, 短, 長, 短, 短 등으로 短句와 長句를 번갈아 가며 씌으로써 낭송 시 운율감을 더해주며 ‘生而爲英, 死而爲靈’과 ‘其同乎萬物生死而復歸於無物者, 暫聚之形. 不與萬物共盡而卓然其不朽者, 後世之名’은 對偶를 이룬다.

「祭尹師魯文」에서도 허자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⁶⁵⁾ 다음과 같다.

61) 「祭石曼卿文」: 今固如此, 更千秋而萬歲兮, 安知其不穴藏狐貉與鼯鼯? 此自古聖賢亦皆然兮, 獨不見夫累累乎曠野與荒城?

62) 「祭謝希深文」: 況于吾徒, 師友之分, 情親義篤, 其何可忘?

「祭蘇子美文」: 哀哀子美, 命止斯耶?

63) 羅大經『鶴林玉露丙卷14』: 韓柳用奇字重字, 歐蘇唯用平常輕虛字, 而妙麗古雅, 自不可及. 此又韓柳所無也.

64) 蘇洵「上歐陽內翰第一書」: 執事之文, 紆餘委備, 往復百折, 而條達疎暢, 無所間斷.

65) 이미 상술한 원문을 통해 虛字 사용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王文瀾는 『歷代詩評註讀本宋

嗟乎師魯! 辯足以窮萬物, 而不能當一獄吏, 志可以狹四海, 而無所措其一身. 窮山之崖, 野水之濱, 猿獠之窟, 麋鹿之群, 猶不容於其間兮, 遂即萬鬼而爲鄰. 嗟乎師魯! 世之惡子之多, 未必若愛子者之衆. 何其窮而至此兮, 得非命在乎天而不在乎人! 方其奔趁機斥逐, 困厄艱屯, 舉世皆冤, 而語言未嘗以自及, 以窮至死, 而妻子不見其悲忻. 用舍進退, 屈伸語默, 夫何能然? 乃學之力, 至其握手爲訣, 隱几待終, 顏色不變, 笑言從容. 死生之間, 既已能通於性命, 憂患之至, 宜其不累於心胸. 自子云逝, 善人宜哀, 子能自達, 予又何悲惟其師友之益, 平生之舊, 情之難忘, 言不可究.

嗟乎師魯! 自古有死, 皆歸無物. 惟聖與賢, 雖埋不歿. 尤於文章, 焯若星日. 子之所爲, 後世師法, 雖嗣子尚幼, 未足以付予, 而世人藏之, 庶可無於墜失. 子於衆人, 最愛子文, 寓辭千里, 侑此一尊, 冀以慰子, 聞乎不聞?

문장 전체가 四六文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辯足以窮萬物, 而不能當一獄吏, 志可以狹四海, 而無所措其一身’ 등의 對偶가 돋보인다. 이러한 대우는 四六文인 경우가 많은데, 歐陽修는 古文의 大家인 동시에 新體體인 四六文의 高手로서⁶⁶⁾ 祭文에서 四六文을 다용하였다.⁶⁷⁾ 실제로 그의 祭文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四字와 六字를 적절히 배합하여 長短의 리듬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재귀적 패턴으로 인간의 심미적 감각을 자극한다. 이 외에도 平仄의 배합, 韻脚의 疏密, 駢散의 交錯 등을 통하여 사람을 감동시키는 어음의 효과를 조성하고 陰柔의 심원함에 치중하여 문장의 감동력을 강화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歐陽修의 祭文은 자연 그 으뜸이라 할 수 있는데, 「祭石曼卿文」, 「祭尹師魯文」, 「祭謝希深文」 등이 더욱 그러한데, 그 중 「祭石曼卿文」 을 보도록 하자.

嗚呼曼卿! 生而爲英, 死而爲靈. 其同乎萬物生死而復歸於無物者, 暫聚之形. 不與萬物俱盡而卓然其不朽者, 後世之名. 此自古聖賢, 莫不皆然, 而著在簡冊者, 昭如日星.

嗚呼曼卿! 吾不見子久矣, 猶能仿佛子之平生. 其軒昂磊落, 究兀崢嶸, 而埋葬於地下者, 意其不化爲朽壤, 而爲金玉之精. 不然生長松子生動活潑尺, 產靈芝而九莖. 奈何荒

元明詩評註」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意義疊生, 大氣包舉, 尤能善用虛字.

66) 張毅『宋代文學思想史』(中華書局, 1995) 325쪽.

67) 歐陽修의 작품 중에 四六文으로 지은 「潁州西湖致語」는 혼자 노니는 즐거움을 말하였는데, 독자에게 풍부한 感受를 준다. “昔者王子猷之愛竹, 造門不問于主人, 陶淵明之臥輿, 遇酒便留于道士. 況西湖之勝概, 擅東潁之佳名, 雖美景良辰, 固多高會, 而清風明月, 幸屬閑人, 并游或結于良明, 乘興有時而獨往. ……”

烟野蔓，荆棘縱橫，風淒露下，走磷飛螢。但見牧童樵叟，歌吟而上下，與夫驚禽駭獸，悲鳴嚶而吶。今固如此，更千秋而萬歲兮，安知其不穴藏狐貉與鼯生？此自古聖賢亦皆然兮，獨不見夫累累乎曠野與荒城？

嗚呼曼卿！盛衰之理，吾固知其如此，而感念疇昔，悲涼淒愴，不覺臨風而隕涕者，有愧乎太上之忘情。

이 문장에서는 기본적으로 駢體와 散體를 교착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 ‘嗚呼曼卿！生而爲英，死而爲靈。其同乎萬物生死而復歸於無物者，暫聚之形，不與萬物俱盡而卓然其不朽者，後世之名。此自古聖賢，莫不皆然，而著在簡冊者，昭如日星.’에서 그러하다. 또 英，靈，形，名，星，生，嶸，壤，精，莖，橫，螢，嚶，鼯，城，愴，情 등을 押韻하여 낭송할 때 더욱 구슬픈 정감을 표현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歐陽修는 자칫 의례적인 격식과 천편일률적인 내용에 치우치기 쉬운 祭文을 새로운 문학적인 체재로 공고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가 다양하고 변화있는 내용과 서술 구조 및 표현 방식으로 문장을 썼기에 祭文은 제 전 때 읽히는 실용문에서 작자의 사고와 감정을 담아내며 독자로 하여금 무한한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感慨 美文으로 변모하였다.

4) 行蹟 議論의 삽입

祭文은 본래 망자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는 글이므로 내용이 자칫 망자에 대한 실제 생애와 업적보다 과장되기 쉽다. 또 더욱 슬퍼하고 추모하도록 하기 위해 왜곡하기도 하고 무조건적으로 찬양할 수도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歐陽修의 祭文은 망자의 일생과 업적 및 인품에 대해 지극히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문장 내에서 항상 자신이 직접 만났거나 함께 겪었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을 더듬고 있어 매우 사실적이며 진실한 느낌을 준다. 이로 말미암아 독자는 망자에 대한 애도의 감정을 더욱 실감하며 망자의 인품이나 업적 등에 대하여 더욱 경건하게 추송하게 된다. 이는 唐代的 祭文이 정감만을 위주로 쓰여져 있는 것과는 달리 이치가 강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예라 하겠다.

韓愈의 「祭房君文」을 살펴보자.

모년 모월 모일 저 韓愈가 삼가 관리 황보열을 보내어 맛 좋은 술과 고기를 오관 축객의 영구 앞에 펼쳐내어 제사 드립니다. 오호라! 그대가 이 지경에 이르니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만약 귀신이 있다면 제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 처자식 걱정은 하지 마시옵소서. 오호라! 그대께서는 이 말을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상항!⁶⁸⁾

이 문장은 전체 60여 글자밖에 되지 않는 短文으로 한 글자 한 글자에 오열이 담겨 있어 독자로 하여금 최고조의 감정을 이끌어 내게 한다. 이에 비하면 歐陽修의 祭文은 운율을 띤 長文으로 망자의 생애와 사적을 의론하고 아울러 무한한 애상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사실적인 기록과 함께 슬픈 정조가 작품 전체를 휘감고 있다.

그의 「祭石曼卿文」은 먼저 망자의 명성이 불후함을 말하고 이어 묘도의 처량함을 부각한 후 과거 성현들을 추도하고 있다.

오호라, 만경이여! 살아서는 영웅이더니 죽어서는 신령이 되었구나. 만물의 생사와 함께 하며 다시 無物로 돌아가는 것은 잠시 모여든 형체이며 만물과 함께 다 사라지지 않고 탁연히 불후한 것은 후세의 명성이라. 이는 자고로 성현들도 모두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책 사이에 기록된 것이니 해와 별처럼 빛난다.⁶⁹⁾

이는 처음에는 죽음에 대한 담담한 심경을 드러내는 듯하다가 결국은 망자에 대한 추억을 잊기 어려운 것으로 결말을 지음으로써 작자의 한없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이전의 祭文에서 자칫 형식적으로 아부하는 듯 슬픔만을 줄곧 표현하는 것과 대비하여 오히려 독자가 사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표현이라 하겠다.

「祭吳尚書文」은 嘉祐 3년(1058)에 지은 문장이다.

오호라 공이시여! 내가 장차 늙어가고 세상을 두루 본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당시의 일을 보니 기뻐할만한 것은 적고 슬퍼할만한 것은 많습니다. 선비가 어려서 그

68) “維年月日，愈謹遣吏皇甫悅以酒肉之饋，展祭于五官蜀客之柩前。嗚呼！君乃至于此，吾復何言？若有鬼神，吾未死，無以妻子爲念。嗚呼！君其能聞此言否？尚饗！”

69) “嗚呼曼卿！生而爲英，死而爲靈。其同乎萬物生死而復歸于無物者，暫聚之形，不與萬物共盡而卓然其不朽者，後世之名。此自古聖賢莫不皆然而著在簡冊者，昭如日星。”

몸을 부지런히 하고 벼슬의 록을 구하여 명성을 취하는데, 처음에는 아끼고 사모할 만한 자가 많습니다. 얼마 후에는 그가 하고자 하는 바를 얻음에 나태해지고 이해 관계에 급박하여 옳기니 그 절개를 온전히 하고자 하여 끝까지 보존하는 자는 열에 하나뿐이다. 그 사람이 건강하게 먹고 마시며 평소에 거할 때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하며 서로 기뻐하니 그 뜻을 살피면 크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혹은 헤어지고 혹은 만나니 보지 못한 지 얼마 안되어 마침내 쇠약한 병에 걸리게 되어 하루 아침에 홀연히 죽은 자가 열에 여덟 아홉이다.

오호라! 공이시여, 소위 훌륭한 군자들은 어렵게 인음이 그와 같고 쉽게 잃음이 이와 같다. 그러므로 매번 한 사람을 잃고 탄식하며 울지 않은 적이 없으니 소리를 잃고 길게 울부짖음에 이르지 않은 적이 없다. 공의 재모는 죽지 대신의 자리에 거할 만하고 문학은 후세에 이름 남길 만하니 의당 조정에서 국론을 강론하여야 한다. 오래도록 밖에서 머물다 마땅히 천수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의 선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갑자기 돌아가시니 이는 높은 대부들이 그의 집에 모여들어 조문하고 옛 친구들이 신위에 달려와 곡하지 않은 자가 없으니 어찌 다만 쇠로한 사람이라서 쉬이 느끼어 많이 울었겠는가! 상향.⁷⁰⁾

吳尙書는 吳育(1004-1058)으로 字는 春卿이고 建州 浦城人이다. 天聖 5년(1027)에 진사가 되어 知臨安, 知諸暨, 知襄城을 거쳐 通判蘇州와 參知政事로 올랐다. 嘉祐 3년에 오상서가 죽자 歐陽修가 이 문장을 썼고 다음 해에 묘지명을 썼다.⁷¹⁾ 歐陽修는 망자가 생전 이해관계를 따져 영록을 구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병에 걸려 죽었음을 서술하였다. 망자를 온화하고 지조있는 선비로 기록하고⁷²⁾ 그가 죽자 사대부들과 친구들이 모두 몰려와 슬퍼한 사실을 통해서 그 슬픔을 증거하고 강조하였다.

70) “嗚呼公乎! 余將老也, 閱世久也, 見時之事可喜者少而可悲者多也。士少勤其身, 以干祿仕, 取名聲, 初若可愛慕者衆也。既而得其所欲而意, 與迫於利害而遷, 求全其死以保其終者, 十不一二也。其人康強飲食, 平居笑言以相歡樂, 察其志意, 可謂偉然。而或離或合, 不見幾時, 遂至於衰病, 與其俯仰旦暮之間忽焉以死者, 十常八九也。

嗚呼公乎! 所謂善人君子者, 其難得既如彼, 而易失又如此也。故每失一人, 未嘗不咨嗟殞泣, 至於失聲而長號也。公材謀足以居大臣, 文學足以名后世, 宜在朝廷以講國論。而久留于外, 宜享壽考以爲人望。而遽云長逝, 此縉紳大夫所以聚吊于家, 而交朋故舊莫不走哭于位, 豈惟老病之人獨易感而多涕也。尙饗!”

71) 『宋史·吳尙書傳』: 吳育字春卿, 建安人也。父待問, 與楊億同州里, 每造億, 億厚禮之。門下少年多易之, 億曰, 彼他日所享, 非若曹可望也。累官光祿卿, 以禮部侍郎致仕。育少奇穎博學, 舉進士, 試禮部第一, 中甲科。除大理評事, 遷寺丞。歷知臨安, 諸暨, 襄城三縣。

72) 王銍『四六話·卷下』: 吳正肅試賢良方正科殿試策, 因論古今風俗之變。

「祭梅聖俞文」에서도 歐陽修가 직접 망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난 사실을 토대로 문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⁷³⁾ 장년이었을 때 즐거이 만났던 일, 마음이 너그럽고 나이보다 젊어 보인 얼굴 등을 서술함으로써 독자에게 신뢰를 준다.

본래 祭文이란 죽은 자를 애도하는 문장으로 추도의 감정이 주조를 이룬다. 이전의 제문들이 대부분 이러한 애도의 정감을 표출하는 데 치중하였다면 歐陽修의 제문은 조금 더 이성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의 제문에도 비통한 감정이 연면히 흐르고 있지만 내용상 망자의 생전의 모습과 행적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기술한 부분이 적지 않다.

4. 나가며

歐陽修의 祭文은 총 43편으로 『居士集』 37편과 『居士外集』 6편이 있는데,⁷⁴⁾ 『居士集』 37편을 그 대상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神을 대상으로 한 것이 4편, 山川을 대상으로 한 것이 1편, 선조를 대상으로 한 것이 5편, 친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 10편, 황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 2편,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것이 4편, 知人을 대상으로 한 것이 9편, 대상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 2편이다. 이 祭文들의 내용을 보면 비를 간구하는 것이 4편, 비가 그치기를 염원하는 것이 7편이 있고 그 외 26편은 모두 망자에 대한 애도의 정을 담고 있다. 그 대상과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산천이나 신, 선조를 대상으로 한 문장에서는 주로 홍수나 가뭄 때에 간청을 올리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인간을 대상으로 한 문장에서는 애도와 슬픔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제문은 실제로 儀式的 기능이 강조된 실용문으로 제사를 올릴 때 의례적으로 낭송되는 글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형식이 비교적 단순하고 상투적이기 쉽다. 그

73) 註 501) 參照.

74) 본고에서는 『居士集』 內의 문장을 위주로 다루기로 했으므로 『居士外集』 內 「祭沙山太守祈晴文」, 「祭五龍祈雨文」, 「祈晴文」, 「祭東嶽文」, 「祭金城夫人文」, 「祭王深甫文」 등 6편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다.

림에도 불구하고 歐陽修의 제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대상에 대한 작가 자신의 무한한 감정과 사상을 불어 넣음으로써 무한한 감동을 자아내고 주제 의식을 분명히 전달하였다. 그는 지극히 단순하고 형식적인 제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것 외에 더욱 다양한 대상을 추구하여 내용과 제재의 경계를 극대화 시켰고, 아울러 문학적 수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문학성을 제고시켰다. 다양한 구조의 변화를 통해 대상에 따른 효과를 증대시키고 반복효과, 감탄사 사용, 반문구 활용, 허자 사용 등의 다양한 문학적 표현 수법을 통해 감동을 극대화 시켰다. 또한 제사의 대상이 지나치게 과장되게 칭송되거나 추모되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대상의 행적과 의론을 삽입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이는 祭文의 체제가 문학성이 풍부한 散文으로 거듭나기에 큰 공헌을 함과 동시에 실용적인 문장이 송대에 와서 아름다운 美文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실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여타의 실용적인 문장의 변화상을 적극 검토한다면 송대 문장의 문학적 가치와 의의를 제고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 參考文獻 >

- 吳 納, 『文章辨體序說』, 人民文學出版社, 1962.
 徐師曾, 『文體明辨序說』, 人民文學出版社, 1962.
 姚 鼐, 『古文辭類纂』, 世界書局, 1975.
 劉子健, 『歐陽修的治學與從政』, 香港新亞研究所, 1963.
 林 紓, 『韓柳文研究法』, 廣文書局, 1964.
 陳 柱, 『中國散文史』, 商務印書館, 1980.
 張華盛, 『歐陽修』, 安徽人民出版社, 1981.
 郭正忠, 『歐陽修』, 上海古籍出版社, 1982.
 林子鈞, 『六一居士歐陽修』, 莊嚴出版社, 1983.
 陳幼石, 『韓柳歐蘇古文論』, 上海文藝出版社, 1983.
 吳小林, 『唐宋八大家』, 安徽人民出版社, 1984.
 杜維沫 陳新選注, 『歐陽修選集』, 上海古籍出版社, 1986.

- 孫昌武, 『韓愈散文藝術論』, 南開大學出版社, 1986.
 劉德清, 『歐陽修論稿』,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1.
 曾棗莊, 「北宋古文運動的曲折過程」, 『文學評論』, 1982, 第5期.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literary world of Song(宋) dynasty's funeral orations. It lays on funeral orations of Ou Yangxiu(歐陽修).

The literary merits of Ou Yangxiu's funeral orations are raised more than before. It depends on the expansion of contents and subject matters and effective rhetoric. He changes a bald style to a flowery style. His funeral orations plays an important role in changes of the prose style. He tries to reform old prose and to write creative works in view of a literary man.

Key Words : funeral oration, change, Ou Yangxiu, Song dynasty, contents, expansion, description, variety, a subject matter, the achievement, debate, insertion, practicality, simplicity, beautiful